

세대에 민난 사람 <2>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연구사



“예술의 숨겨진 가치 전하는 기획자 되고파”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 그들의 예술적 세계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술가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우리 모두 살기 좋은 사회라 생각합니다.”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지지 않는 파워의 대명사다. 지난 2년간 남구 이강하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기획·상설·특별전시와 다양한 세대의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행사를 꾸려왔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미술관 사무실엔 불이 밝혀 있고, 전시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내는 시간은 주로 새벽 4~5시 쯤이다. 열정의 원천을 물어보면 그녀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다.

“선배들이 조언해 주시길 집에 가면 미술관 스위치를 끄고 해요.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욕심에 2년동안 마냥 달렸던 것 같습니다.”

미술대학 졸업 후 광주시립미술관 준학예사 및 코디네이터로 2년간 근무하고, 이후 시안갤러리 큐레이터를 거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에서 7년을 일했던 그녀는 2018년부터 남구 이강하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고 이강하 화백의 장녀인 그녀는 “사실 제 목표 중 하나가 이강하의 그늘에 갇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하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이강하

화백의 작품을 연구하고 전시를 만드는 것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전시와 교육, 행사, 프로그램으로 많은 세대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술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관심있는 것들을 작업으로 풀어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지향점이지요.”

현재 미술관에서는 개관 2주년 기념

아트인컬처 ‘한국미술계 이끌 차세대 111인’ 올해 5·18 40주년 기념전·학술세미나 등 마련 “많은 세대들이 함께하는 공감의 공간 운영할 터”

전으로 ‘주관적 변용’전을 열고 있다. 김철아, 신도원, 표인부 작가가 참여해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와 예술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들을 작품으로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전국의 전시장을 다니며 작품을 보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그녀는 모든 자료를 분류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 작업실을 방문해 인터뷰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 이강하미술관은 5.18 40주년 기념전을 포함해 기획전, 특별전, 상설전 등 6회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이 외에

굿모닝 양림 어린이 사생대회 선정작품 전시가 마련된다.

“5.18 40주년 기념전은 상명대 손기환 교수와 이강하의 2인전 또는 3인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18을 겪지 않은 젊은세대 작가와 손기환 작가의 팝아트, 이강하의 사머니즘적 리얼리즘을 매칭해 세대간 5.18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선보일 예정

을 통해 상상, 공감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강하미술관은 월산동 달피마을 할머니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해 미술관 관람하는 법과 그림일기 등을 지도해 오고 있다.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매주 화요일 진행한다. “지역에 돈이 없다, 미술관이 없다, 작가가 없다는 편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기획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유튜브나 영상매체가 아무리 발전해도 원작에서 느끼는 예술의 가치와 감동은 변함이 없어요. 보석같은 작품을 찾아 관람객들이 감동받고 예술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녀는 최근 ‘아트인컬처’가 선정한 ‘2020년 한국미술계를 이끌 차세대 111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미술의 ‘세대교체’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각 분야의 젊은 기수로 선정된 것. 광주전남에서는 양초롱 해동문화예술촌 예술감독과 이선 학예연구사 두 사람이 뽑혔다. “선배들이 같이놓은 토양에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운은 기회였죠. 영파위에 선정된 것은 감사하지만 아직 부족해서 부끄럽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 같아요. 멀리 나아가길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수 기자

월산동 달피마을 아카이브전

내달 7일까지 달피마을 곳곳서 열려

재개발되어 변화하고 있는 곳인 월산동에서 문화적인 활력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월산동 달피 달팽이 마을 아카이브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달피마을 아카이브전은 월산동 달피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사진, 영상,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한다.

영상 아카이브전, 생애사스토리전, 사진 아카이브전, 주민릴레이 전시기록전으로 구분되며 각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경험한 문화적인 이슈를 담았다. 오는 2월 7일까지(월-금오전 10시-오후 5시) 달피마을 내 쉼터와 주민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곳에서 전시가 진행된다.

월산동의 삶을 지켜보고 겪었을 누군가



월산동 달피 달팽이마을 아카이브 전시가 오는 2월 7일까지 마을 곳곳에서 열린다.

의 실존적 이야기 또는 마을에 살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낸 결과의 마을 아카이브 출판도사전도 함께 진행된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달피마을 이야기를 풀어낸 마을 작가 7팀과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연수 기자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배우 공모

연극 ‘맹진사댁 경사’...내달 10일까지 접수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이상만)이 제 15회 정기공연 ‘맹진사댁 경사’에 출연할 연기자들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연기 능력을 갖춘 경력 및 신인배우 총 20명으로 연습,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디션은 오는 2월 14일 지정연기와 특

기 순서로 광주 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지정연기는 ‘맹진사댁 경사’ 중 한 역할을 선택해 1~2분 내로 표현해야 한다. 오디션 참가 접수는 2월 10일까지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오지현 수습기자

2020여행주간 발표. 비수기 국내여행 활성화 목표 6월·11월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0년 여행주간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여행주간은 대개 5월과 10월에 추진되어 여름철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봄과 가을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2020년부터는 비수기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6월과 11월로 그 시기가 변경됐다. 1차 여행주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4일, 2차 여행주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해 여행을 갈 수 있는 분위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table.